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무따래기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오늘의 뜻

남의 일에 함부로 훼방을 놓는 사람들.

문헌의 첫 기록
19세기

수록 용례
7개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2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무따래기'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 남의 일에 함부로 훼방을 놓는 사람들.

무따래기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무따래기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뭇드락이 사전 표기 요약	—	—	—	—	●→	—
뭇다락이 사전 표기 요약	—	—	—	—	●→	—
무따래기 사전 표기 요약	—	—	—	—	—	●→
뭇쌀아기 문헌 수록 표기	—	—	—	—	—	●→
무뜨라기 문헌 수록 표기	—	—	—	—	—	●→
뭇따래기 문헌 수록 표기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4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뭇드락이
  19세기
- 뭇다락이
  19세기
- 무따래기
  20세기현재
- 뭇쌀아기
  20세기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6종

뭇드락이, 뭇다락이, 뭇쌀아기, 무뜨라기, 무따래기, 뭇따래기

무따래기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소제목은 읽기를 위한 편집 안내

옛 표기와 등장 시기

‘무따래기’의 옛말인 ‘뭇드락이’, ‘뭇다락이’는 19세기부터 나타난다.

말의 구성과 어원

‘뭇드락이’, ‘뭇다락이’는 수효가 매우 많은을 뜻하는 관형사 ‘뭇’과 ‘드락이’, ‘다락이’가 결합한 것으로, ‘드락이’, ‘다락이’는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

표기와 소리의 특징

20세기에는 ‘무뜨라기’, ‘무따래기’, ‘뭇따래기’ 등 다양하게 표기되었다. 19세기의 ‘뭇드락이’, ‘뭇다락이’가 제2음절이 된소리인 ‘*무쓰락이’, ‘*무싸락이’와 같이 발음되었을 것인데 이를 반영하여 제2음절을 된소리로 표기한 것이다.

오늘의 형태로 이어진 과정

20세기까지 여러 형태가 쓰였으나 ‘무따래기’로 굳어져 현재까지 이어진다.

문헌 속의 무따래기

전체 용례 7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19세기 뭇드락이, 뭇다락이 용례 2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뭇드락이, 뭇다락이

출처 1880 한불자전 260 용례 01

문헌 용례

뭇드락이 [衆人].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897 한영자전 PART I :353 용례 02

문헌 용례

뭇다락이 [衆人].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20세기 뭇쌀아기, 무뜨라기, 무따래기 외 1종 용례 5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뭇쌀아기, 무뜨라기, 무따래기, 뭇따래기

출처 1920 조선어사전 용례 03

문헌 용례

뭇쌀아기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8 조선어사전

용례 04

문헌 용례

무뜨라기.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48 표준조선말사전(재판)

용례 05

문헌 용례

무따래기.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57 큰사전

용례 06

문헌 용례

뭇따래기.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61 국어대사전

용례 07

문헌 용례

무따래기.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무따래기에 관한 주석

'무따래기'가 '무따라기', '무뜨라기'로 나타나는 것을 고려하여, '무따래기'를 수효가 매우 많은을 뜻하는 '뭇'과 다른 사람이나 동물의 뒤에서, 그가 가는 대로 같이 가다를 뜻하는 '따르-'와 명사 파생 접미사 '-기'가 결합한 것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그렇지만 19세기에 나타나는 어형이 '뭇드락이', '뭇다락이'이어서 '따르-'가 보이지 않는다.##한편 성격이 비뚤어지고 꼬인 사람을 이르는 말을 뜻하는 말로 '짜드라기'가 있는데, 이를 19세기의 '뭇드락이'와 관련지으면 '드락이'를 '사람'을 뜻하는 표현으로 볼 가능성도 있다. 20세기에 '싸드락이'의 형태가 확인된다. [예] 민중들도 쐐 싸드락이 판이란다.

무따래기의 보충 설명

19세기 사전에 실린 ‘뭇드락이’, ‘뭇다락이’에는 함께, 여럿, 군중 정도의 뜻만 실려 있다. 남의 일을 훼방 놓는 사람이라는 뜻은 20세기 사전에서 나타난다. 그런데 표기의 변화는 꽤 심한 편이다. ≪조선어사전≫(조선총독부, 1920)에서는 ‘뭇쌀아기’라고 올리고 폐를 끼치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풀이가 되어 있다. ≪조선어사전≫(문세영, 1938)에서는 ‘무따라기’를 ‘무뜨라기’의 사투리로 처리하고 ‘무뜨라기’에서 남의 일을 훼방 놓는 사람이라는 뜻과 ‘여러 사람’의 속어라는 뜻을 인정하였다. 그런데 ≪표준조선말 사전(재판)≫(이윤재, 1948)에서는 ‘무따래기’로 올리고 남의 일을 훼방 놓는 사람이라는 뜻만 인정하였다. ≪조선 말 큰 사전 2권≫(조선어학회, 1949)에서는 ‘뭇따래기’를 인정하여 표기가 달라졌고 ≪국어대사전≫(이희승, 1961)에서는 다시 ‘무따래기’로 올렸다. 이후 ‘뭇따래기’와 ‘무따래기’로 출판된 사전들 사이에 차이가 있다가 ‘무따래기’로 굳어졌다.

무따래기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 백문식 2014 《우리말 어원사전》 박이정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무따래기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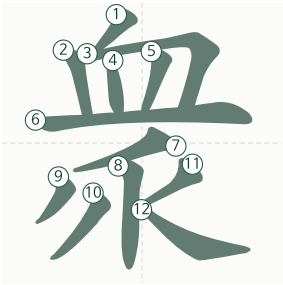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衆

뜻·음 무리 중

총 12획 · 부수 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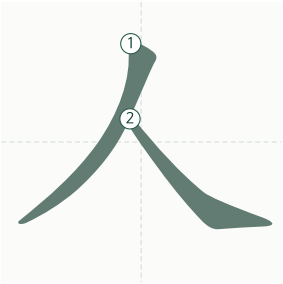
hanja.wordrow.kr/한자/衆/

人

뜻·음 사람 인

총 2획 · 부수 人





hanja.wordrow.kr/한자/人/

그림·뜻·음·획수: WORDROW 한자 학습 사전 · 각 카드의 주소에서 조회
획순: AnimCJK / Make Me a Hanzi · Arphic Public License · 숫자 배치 편집: 단어의 역사
사전 획수와 다르면 함께 표기했습니다.